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 무주군, 1.5% 고정금리로 중소기업 최대 2억원·소상공인 최대 2000만원

무주군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1.5% 고정금리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규모는 총 4억 원으로 중소기업은 최대 2억 원(2년 거치 일시상환), 소상공인은 최대 2천만 원(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지원대상은 농공단지 입주업체, 지역 특화상품 생산업체, 사업장과 본사가 무주군에 소재하고 있으며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신용등

급 1~4등급) 등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을 갖추고 무주군 산업경제과 투자유치팀(문의 063-320-2351~3)에 신청하면 된다.

무주군은 고용인원(4대 보험 기준)이 많은 업체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융자를 지원한다는 방침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투자유치팀 박

진규 팀장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많이 위축된 상황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이 경영안정과 내실을 다지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관내 많은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신청자가 많아서 기금이 조기 소진될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경을 적극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군-장수군의회-장수교육지원청, 업무협약 체결

### 장수교육문화복지시설 조성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장수군(군수 장영수), 장수군의회(의장 김중문), 전북도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정동일)은 지난 20일 장수군청 2층 회의실에서 장수교육문화복지시설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장수교육문화복지시설 조성 관련 기관 간 긴밀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장수군, 장수군의회, 전북도장수교육지원청은 지난 20일 장수군청 2층 회의실에서 장수교육문화복지시설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내용은 장수교육문화복지시설 조성 관련 장수군이 총 사업비 81억원 중 2020년~2021년까지 연간 10억원씩 총 2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장수교육지원청은 설립 및 운영을 위한 협력사항에 적극 협력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장수교육문화복지시설에는 청소년복합문화공간과 특수교육지원센터, 통합관사가 신속될 예정이며, 장수 관내 청소년들에게 실용적인 진로체험, 직

업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장영수 군수는 "장수교육문화복지시설의 설립은 우리 장수 청소년들의 미래의 꿈을 더욱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며 "장수군-장수군의회-장수교육지원청의 협력으로 이 시설을 만드는 만큼 장수군이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코로나19 피해 농업인·농업분야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 영농활동 피해 입은 농가 대상 농가당 최대 5000만원

진안군은 지난 20일 '코로나19' 피해 농업인 및 농업분야 경영안정을 위해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재해대책경영자금은 코로나19 확진 또는 감염 의심으로 격리되거나 이로 인한 농작업 보조인력 수급 차질 등 영농활동에 피해를 입은 농가가 대

상이다.

지원한도는 농가당 소요경영비를 기준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이며, 대출 조건은 고정금리(1.8%) 또는 변동금리(1.2%, 6개월 변동)로 1년간 지원되며 일반농가는 1년 연장이, 과수농가는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신청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재해

대책경영자금 특별융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농업인이 인력부족 및 판매처 확보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재해대책경영자금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입장에서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적극행정 실행계획 본격 추진

### 진안군, 실행 위해 4대 분야 12개 핵심과제 설정

진안군은 지난 20일 현장에서 답을 찾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12월 '진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해 법적 기반을 마련한데 이어 적극행정의 체계적 추진과 문화 확산을 위해 '20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을 위해 4대 분야 12개 핵심과제를 설정했다. 4대 분야는 ▲적극행정 추진체계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보호 및 지원 ▲소극행정 혁파이다. 12개 주요 핵심과제는 ▲적극행정 면책 제도 활성화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사전컨설팅제도 운영 활성화 ▲법률지원 및 개인배상책임 완화 ▲소극행정 예방시스템 구축 등이다.

군은 적극행정을 보다 속도감 있고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군청 홈페이지에 적극행정 코너를 신설해 적극행정 제도와 우수사례 등을 홍보하고 군민이 직접 참여해 우수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나혜수 진안군수 권한대행은 "현장의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적극 해결하려는 공직자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지역 소식통

### 진안고원시장 노점상 영업 31일까지 중단

진안고원시장 노점상 영업이 이달 31일까지 중단된다.

진안군은 최근 코로나19 발생 방지를 위해 진안고원시장 주변 노점상 영업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세 자릿수로 늘고, 전북지역에서도 10번째 추가 확진자가 나오에 따라 코로나19 발생 방지를 위해 전격적으로 내려졌다.

진안고원시장의 경우 장날에는 70여명의 노점상들이 영업을 하는데, 외부지역에서 들어오는 상인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안군은 지역상권 침체를 염려하여 노점상 영업을 허용하면서 상인들에 대한 방역체계를 실시하고 마스크 및 장갑 착용을 지도해 왔으나, 최근 상황을 고려해 진안고원시장상인회와 협의를 거쳐 노점상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민원담당공무원 대상 맞춤형 상담 진행

### 무주군,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진단지 활용 검사·상태 진단

무주군이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본청 및 읍면)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고질 민원과 대민업무 부담이 큰 민원 공무원들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해 업무효율을 높이고 주민들이 느끼는 행정 만족도와 신뢰도 역시 향상시킨다는 취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군청 민원실에 마련된 상담실에서 심리상담사 1급 자격을 갖춘 장효순 행정복지국장이 직접 진행한다. 상담을 의뢰한 공무원들은 진단지를 활용해 심리검사를 받은 후 상태에 따른 맞춤형 개인 상담을 받게 된다.

장효순 국장은 "지난해 8월부터 50여 명과 상담을 진행했다"라며 "일선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느끼는 피로감이나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커서 우선 이를



해소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상담을 통해 직원들의 자존감과 업무 자신감이 함께 상승할 수 있도록 정성을 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주군은 청 내 상담 외에도 전문기관 위탁 검사 및 상담도 병행할 계획으로 올해는 4명(인당 25만 원 3회)을 지원한다. 3월 중 대상자를 선정해 상담 쿠폰을 발행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진장소방서, 소방활동 방해차량 단속제 실시

무진장소방서(서장 박덕규)는 내달 1일부터 신속한 소방차 출동환경 조성을 통한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활동 방해차량 단속제를 실시한다.

본격 단속이 이뤄지는 4월 1일부터는 소방차량 출동방해 등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현수막 게시와 전광판 홍보, 위반차량 경고장 부착 등을 통해 불법주정차 집중단속을 안내한다.

주요 단속구역은 소화전과 각종 송수구 주변 5m 이내, 전통시장, 공동주택, 상가 밀집지역, 화재경계지구, 다중이용업소 소방통로 등 상습정체구간이다.

소방활동 방해차량 단속은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활용하여 즉시신고 ▲소방차체 정기 및 수시단속 ▲소방-군 합동 단속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박덕규 서장은 "소방활동 방해차량 단속제 실시하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 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군, 건강 취약계층 KF마스크 지원

장수군이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KF마스크 지원에 나섰다.

군은 지난 20일 호흡기 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건강 취약계층 284명에게 마스크(1인 KF마스크 5매, 면마스크 2매)를 전달했다.

이번 마스크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우편 발송했다.

김진숙 과장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의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건강 상태보다 치사율이 높아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우선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장수군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



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도 사회적 거리 두기,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는데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